

합격기

[제55회 행시 국제통상직렬]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



김 현 진

- 압구정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 제55회(2011년) 행시 국제통상직렬 합격

안녕하세요. 행정고시 55회 국제통상 직렬에 합격한 김현진입니다. 제 수험 시간을 정리해 본 이 합격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고시 공부 기간

저는 IT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전기공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공대 공부를 하던 중,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월드포럼에 한국 대학생 대표로 참가하면서 해외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협소한 정보력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외교관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졸업과 함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6년, 2008년에 외무고시 2차를 보았고, 2010년 행정고시로 선회하여 합격하기까지 7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불합격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학원 화장실에서 구도를 하던 기억, 학원 강의실에 앉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려나 체념하던 기억.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울컥할 정도로 힘들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지만, 내 힘으로 총체적 난국을 마주하고 헤쳐 나왔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시절이기도 합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1. PSAT

저는 무식하게 달려들어서 PSAT의 벽을 넘었습니다. 관건은 절대적 양과 시뮬레이션. 2009년, 2010년 내리 답안지 표기에 실수를 해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 그만 PSAT, 더 나아가 고시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버렸습니다. 왜 떨어진 건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두 달 정도 공부를 접고 읽고 싶었던 책만 즐기차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독서의 호흡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 과학책만 그저 읽어대었지요. 그러다 2010년 11월에 우연히 국제정치학을 배웠던 신희섭 선생님을 만나 정환 오빠 스터디를 소개받았고, 그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커져가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50분에 끝나는 스케줄을 따랐습니다. 불안감을 성실함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하루에 2회씩 풀고, 1월부터는 기출 스터디를 더해 하루에 3회로 늘렸습니다. 기출은 먼저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고 답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근거로 그런 답을 낸 것인지 설명해 본 후에 답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모든 문제에는 의도가 숨어 있고 핵심을 찾으면 풀어낼 수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풀이 와중에 내가 표기에 약하고 상황판단을 시간내에 못 푼다는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그 점을 보완하고자

10분 동안에 상황판단을 10문제 풀고 표기까지 하는 훈련을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한편으로 실전에서 떨지 않으려고, 매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습니다.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시험장 자리에 앉아언어부터 상황까지 리듬을 타고 풀어보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썼던 초기에는 그저 상상일 뿐인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싶으면 가슴이 떨렸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차분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11년 1차 시험에서 75.8점(국제통상직렬 합격선 70.8점)을 받았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순환을 한 번 돌리고 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정일 선생님 2순환과 3순환을 들었고, 교과서는 볼 수 없었으며, 바닥을 기는 점수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답안을 매일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발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호의를 가지고 대하면 그것에 네게로 다가온다. 3순환 때에 다른 문제가 시험으로 나온다는 믿음 하에 그 날 푼 문제에서 다뤄진 내용을 공부하고 밤에 스터디에 가서 다시 써 보는 연습을 해서 소화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3순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 6월 중순이 되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험 직전에 그 순간이 온 것이지요. 특히 행정법은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기도 했

습니다. 면과락이 목표였는데, 50점대를 받았습니니다.

3.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고시를 하면서 처음 시작한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피발개발로 답안을 채웠지만, 2008년 스페인어 자격증(DELE) 중급을 따려고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3달 정도 하루에 7,8시간을 스페인어에 쏟아 부은 끝에 DELE를 뺏다는 자신감이 더해져, 스페인어는 사랑하는 과목이 되었는데요. 심상완 선생님이 쓴 <한국어 스페인어 번역과 작문>, 조해진 씨가 쓴 <DELE 기출문제를 이용한 숙어와 동사적 표현 모음집>을 어느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독해자료는 DELE 중급 lectura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2007년부터 행시 스페인어의 번역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용어를 다루고 있는 DELE lectura 자료가 공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기호 선생님 모의고사를 계속 보았고, 첨삭을 받을 수 없을 때엔 google 번역기를 돌려 자가 첨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끝에 스페인어에서 43.33점(5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언어야말로 성실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4.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미시, 거시 경제학에 익숙해져 있던 덕에 어렵지 않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서 미시 경제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김진옥 선생님의 미시 500제를 다 풀어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년 정도 보지 못 했는데도 고생스럽게 익혔던지라 시험장에서 기억이 났습니다. 1차 끝나고 3월부터 김진옥 선생님의 국제경제학의 zip을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보았고, 3순환 자료를 토대로 서브를 만들어서 반복해 보았습니다. 수식보다 경제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력하였고,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한은금융강좌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해보았습니다. 나라 경제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는 경제학의 철학적 토대에 거부감이 생겨 비판이 날카로워지는 바람에 답안을 쓰는 게 힘들어졌지만, 비판 의식을 답안지에 녹여보자고 다독이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50점대 후반을 받았습니다.

5. 국제법

국제법은 일반국제법의 경우 철저하게 김대순 저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목차의 순서를 외워서 문제를 접하면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엮어서 쓸 수 있을지 떠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3순환 때 백승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최근 행시 단문 문제가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호흡을 크게 잡고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단문 암기보다는 이해에 주력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3순환에서 단문문제로 다뤄본 주제는 10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포스트 잇 한 장에 담기는 목차를 만들어 외워두었습니다. WTO법의

경우 백승호 선생님의 강의안을 토대로 정성주 선생님의 자료를 기본 목차로 잡아 서브를 만들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경향상 최근의 논의 동향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일요일마다 WTO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며 새로 나온 판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느 부문이 이슈화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달려들어서 판례를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국제법은 50점대 중반을 받았습니다.

6. 영어

영어는 기초 토대를 닦지 않고 바로 번역부터 시작하느라 오랫동안 실력이 늘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싫어지던 차에 강남역에 있는 통번역 대학원 대비 학원을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무조건 암기.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외웠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손에 익도록 쓰기도 하면서 외웠습니다. 초반에는 A4 한 페이지 외우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익숙해지자 몇 시간 만에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Obama Weekly Address, Newsweek, The Economist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1차 후에는 자료를 늘이지 않고 기간 외웠던 자료를 반복해 보았고, 정영한 선생님과 안수진 선생님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사 이슈를 챙겼습니다. 특히 표현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논리의 흐름까지 짚어 내 주신 안수진 선생님의 강의는 에세이를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자료 중에서 편집이 마음에 안 드는 자료는 굳이 보지 않았고, 내가 좋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책을 찾아보면서, 영어 표현이 좋은 미드를 보면서 따라 읽기 하면서 최대한 재미있게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행동심리학에 관심이 있어 읽었던 책이 영어번역 문제에 도움을 주었고, 국제정치학 문제가 에세이로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76.33 점을 받았습니다.

III. 도구

1. 기출문제집

1차, 2차 모두 공개된 기출문제를 스프링 제본해서 매일 아침 공부를 시작하면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노랑 책’이라고 이름 붙인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경향을 파악, 공부의 방향을 잡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어느 정도문제를 찍고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2. 화이트보드

독서실 책상 왼쪽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을 써두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벽면에 포스트 잇을 붙여보기도 했지만 글씨가 작아 버리에 박히지 않기에 생각해 낸 도구였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이 방법이 주효해 시험장에서 생생히 기억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3. 수영

5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1차 후에는 수영을 못 하게 되었는데, 학원에 뛰어가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

단을 오르내리면서 부족한 운동을 보충하였습니다. 2차 직전에는 어질 거릴 정도로 체력 소모가 크고,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보고 와서 독서실에서 3시간 동안 자야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IV. 면접 스터디와 3차 면접

2차 합격자 발표가 6시에 났고, 그 직후인 8시쯤에 국제통상직렬의 스터디가 세 팀 다 꾸려졌습니다. 스터디는 토요일을 포함해서 매일 진행되었고,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오전에는 토론 내지는 협상을 오후에는 개별 면접을 연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토론을 하면서 문제지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보완하거나 반박하면서 논의의 흐름을 잡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연습을 통해 각자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여의 준비기간 동안에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사전조사서를 검열 받기도 하고, 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한 면접준비 과정을 들으며 1:1 보완을 받으며 내 스토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협상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자원해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협상의 사회는 의장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후회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잡은 논의의 흐름을 면접관에게 수정되지 받기도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땐 치마가 커졌을 정도로 푹푹히 면접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를 피하라는 주문도 있지만, 면접장에서는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V. 합격 후

스터디를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충격과 자괴감에 괴로웠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었더니 이렇게 붙어 이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견뎌내었더니 마지막 해에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굳이 미드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필요가 없었고,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지속되어도 설레는 마음에 크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고시를 시작했겠지만, 어려움의 강도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나만 어렵게 아니구나'를 자각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울컥하며 쓴 이 합격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